

教育大學 音樂科 教育課程 探索

申 啓 休

(本學會 副會長 인천교대교수)

目 次	
I. 序 論	III. 教育大學 音樂科 教育課程의 構成
II. 初等教育과 教師의 資質	A. 教育大學 教育課程의 構成
A. 初等教育의 現況	B. 音樂科教育의 教授要目構成 方向
B. 有能한 初等音樂教師의 特性 및 資質	C. 音樂科 深化課程의 運營
	IV. 結 論

I. 緒 論

教育大學에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보다 질 높은 學敎 教育을 실천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有能한 教師를 양성 배출하는 일이다.

教育의 質은 教師의 質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와 같이 음악 교육도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 및 질에 따라 학습 성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 대학의 목적은 유능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질 높고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教育課程의 개발은 교육대학의 근본적인 책임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직전 교사 교육의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그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62년에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에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승격되었고, 2년제 대학으로는 직전 교사교육 기간이 부족하여 다시 1980년에 점진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 수준으로 향상, 개편하여 교육 년한을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직전 교사교육 기간을 4년제로 연장한 이 시점에 와서도 질높고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나없이 주장한다. 특히 국민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사를 길러내기란 현재의 교육대학 교육과정 범위에서는 터무니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교육대학 교육 년한을 현재 보다 더 연장한다고 질높고 유능한 음악을 담당할 교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현재의 교육대학 교육 년한 및 교육과정 범위에서 음악 수업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교사를 길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教育大學 教育課程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音樂科 教育課程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音樂科教育을 위한 教育內容의 범위 그리고 音樂科教育을 위한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有能한 初等音樂教師를 길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初等教育과 教師의 資質을 살펴 본다. 그러기 위하여 初等教育의 現況과 初等音樂教師의 特性和 資質을 理論的으로 살펴보고 둘째, 教育大學 教育課程에서 音樂科教育이 차지하고 있는 학점과 시간 등을 토대로 音樂科教育의 教授要目 構成의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初等教育과 教師의 資質

教育大學은 有能한 初等教師를 養成하는 기관인 만큼 먼저 初等教育의 現況을 알아보고 初等教育을 담당하는 教師의 資質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A. 初等教育의 現況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初等教育은 1948년 憲法의 제정·공포와 1949년의 教育法의 규정에 의해 6년간의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헌법 제27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교육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그 구역내의 학력 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初等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國民學校의 教育目的은 教育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初等教育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보통교육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보편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원만한 민주 국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으로 균형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초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학교의 초등보통교육을 위하여 국민학교의 教育課程도 해방 이후 다섯 차례

의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교부는 1950년 부터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시작하여 1955년 처음으로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을 成文化하였다. 그 이후 국내의 정세의 변천과 지식 및 학문 내용의 증가와 변천 그리고 교육 사조의 변천 등의 영향으로 1963년의 제2차 개정, 1969년의 부분적인 개정·보완, 1973년의 제3차 개정, 1981년의 제4차 개정 그리고 1987년의 제5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공포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다.

1. 건강한 사람

- 가. 건강한 신체
- 나. 건강한 의지
- 다. 건전한 취미
- 라. 풍부한 정서

2. 자주적인 사람

- 가. 주체적인 자아의식
- 나.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
- 다. 진취적인 개척 정신
- 라. 투철한 국가 의식

3. 창조적인 사람

- 가. 기본적인 학습 능력
- 나. 과학적인 탐구 능력
- 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
- 라. 창의적인 사고력

4. 도덕적인 사람

- 가. 올바른 가치 판단
- 나. 인간 존중의 태도
- 다. 건전한 시민 의식
- 라. 인류 공영 의식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실과인 9개 교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활동은 어린이회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로 편성 되었다.

B. 有能한 初等音樂教師의 特性 및 資質

初等教師에 教科 전담 교사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능숙하게 음악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지칭하여 有能한 初等音樂教師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의 특성과 목표를 알아보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특성과 자질을 알아 보도록 한다.

1. 音樂科 教育의 特性과 目標

음악 교과는 學問 분야가 아니라 藝術분야를 다루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學問과 달라 내용의 윤곽이 뚜렷하지 못하므로 교실에서의 일반 음악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의 근원 목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審美的(aesthetic) 가능성을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음악과 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음악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어서 교과로서 지도 되어야 할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학습내용이 있다.

이 음악과 교육의 내용은 음악 자체의 제반 구성요소 및 그에 관련된 개념이나 일반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 4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1977, p.7)

- ① 音樂의 構成要素(components of music as a discipline)
- ② 音樂의 技能(music skill)
- ③ 態度·價值·行動 등을 길러 줄 수 있는 音樂의 內面化(humanizing music)
- ④ 音樂의 思考(musical thinking)

여기서 우리는 음악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目標, 學習, 經驗 내지는 授業方法을 示唆받을 수 있게 된다.

음악과 교육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音樂의 諸能力을 갖추도록 하는 일인 것이다.(李誠載, 1979, p.102) 다시말하면 音樂의 構成要素인 리듬, 선율, 調性, 形式, 音色, 強弱, 速度 등에 대한 反應力의 발달로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보다 깊이 파악하게 하므로써 음악의 가치를 식별하고 연주기능을 발달시키며 音에 의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音樂教育이 지닌 본래의 역할은 학생들의 예민한 感受性과 創造性인 表現力을 기르는 음악적 성장을 통하여 인간적 성장을 꾀하는 일이며 그러한 過程에서 知識이나 技能이 발달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음악은 교육하는 교사 자신의 음악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의 상실, 기능면만을 중시하는 일반적 풍토는 바람직한 음악교육이 아닌 것이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음악적 의미의 특성이 명료하지 않으면 음악학습의 효과는 없을 것

이다. Meyer(Lecnhard C. and House Robert W., 1972, p.123)는 絶對的인 의미와 聯關的인 의미로 분류하였다. 그 일차적 의미로는 美學的 教育이어야 하며 연관적 의미로는 음악의 의미를 感知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제발하는데 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音樂科 教育은 음악의 직접적인 체험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직접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큰 意義가 있다.

첫째로 音樂科 教育의 절대적 의미인 美學的 教育은 情緒教育의 핵심적 부분이다. 情緒는 美的 경험 즉, 음악적 경험이라는 心的 과정을 통하여 內面化된다. 美的 경험이란 보통 認知的 경험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美的 경험을 통하여서도 하나의 感知가 이루어 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認識의 한 形態로 보아야 하므로 이것은 美的認知라고 부른다. 知識을 상식적으로만 주어 들어서 知的인 人間이 될 수 없듯이 情緒도 방임상태에서는 세련된 情緒의 보유자로 자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音樂科 教育에서도 教育된 情緒, 풍부한 情緒, 세련된 情緒를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관적 의미인 음악적 능력 제발은 음악과 교육의 필수적인 기능이라 하겠다. 이는 음악의 표현(가창·기악·창작)과 감상의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총괄한 것이 音樂의 能力이 되는 것이다. 음악적 능력이란 흔히 音樂性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음악성은 음악적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총괄한 것이다. 음악성은 표현의 능력과 수용적인 음악적 감수성(감상)의 양면이 있는 만큼 어느쪽이 부족해도 음악성의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음악적 감수성은 음악의 내적 본질이며, 표현의 중심과제가 되는 기능은 음악의 외적 표출이다. 여기에는 感情的이며 보다 精神的인 세계까지 전개되는 통합된 音樂美의 감수성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인 만큼 음악적 행동을 분류해 본다면 음악에의 독특한 연주(성악 또는 기악)를 들 수 있다. 연주에는 즉흥연주, 악보에 의한 연주, 듣고 따라 연주하기 등이 있고, 읽기와 쓰기 행동으로 읽기는 악보를 소리 내어 읽기, 눈으로만 읽기, 쓰기에는 악보를 보고 쓰기, 외워 쓰기, 듣고 적기(聽音) 그리고 작곡을 하며 쓰기를 한다. 듣는 행동으로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하기, 음악에 의한 감동하기, 분석적인 행동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知的 행동으로 음악적 구조, 음악사, 음악양식 등의 이해를 위한 행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음악적 행동들을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音樂科 教育이다.

2. 初等音樂教師의 特性 및 資質

미국 음악교육협회 교사교육 특별위원회(The task force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Commission on teacher Education), (성경희, 1985, pp. 187-188)는 미래의 음악 교사들을 위한 교사 훈련과 교사 자격증을 위해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 교사 능력 표준의 항목들을 개발해 내었다. 이 항목들은 바람직한 음악 교사의 人性, 전문적인 음악성, 그리고 음악 교육가로서의 전문성 등의 세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바람직한 음악 교사의 인성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또한 음악 교사로서의 진정한 직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유능한 음악 교사의 음악성에는 연주능력을 비롯 창의적 능력과 음에 대한 분석 능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문성에는 교사의 전문적 자세를 통하여 학생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성, 그리고 또한 교수·학습의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음악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면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成敬姬(성경희, 1985, pp. 197-198)는 音樂教師의 資質을 個人的 資質, 音樂的 資質, 專門的 資質로 나누었다.

1. 個人的 資質

- a. 學生을 격려할 수 있다.
- b. 想像的이며 創意的이다.
- c. 利他的이다.
- d. 社會性이 있다.
- e. 自信의 領域과 다른 領域에도 공부하려 하는 의지가 있다.

2. 音樂的 資質

- a. 노래할 수 있다.
- b. 반주를 할 수 있다.
- c. 지휘를 할 수 있다.
- d. 音樂에 대한 깊은 이해와 知識이 있다.

3. 專門的 資質

- a. 音樂과 音樂教育의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哲學을 가지고 있다.
- b. 教授(teaching)에 대한 강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
- c. 音樂의 專門知識과 指導者의 資質을 소유하고 있다.
- d. 學生의 흥미와 욕구를 目標과 연관시킬 수 있다.
- e. 學生의 생각을 授業에 반영시킬 수 있다.
- f. 정확한 學生 反應을 유발시키는 目標 指向的으로 합당하게 質問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音樂教師에게는 많은 能力과 資質을 요구하고 있다. 個人的 資質, 音樂的 資質, 專門的 資質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音樂教師는 확실히 教科에 대한 知識·機能 이 있어야 하고, 이를 분명하게 說明·演奏 할 수 있어야 하며, 教科 傳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教科의 組織力과 教授計劃力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教師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나서 학생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 시키게하여 어떻게, 왜, 音樂이 우리에게 느끼게하고 반응하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어

떻게,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가를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音樂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생각하게 하며, 반응하게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어떤 특수한 음악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작곡가의 음악적 의도를 알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지, 이러한 질문은 한 작품의 기본적 음악 특성 내지는 음악 요소를 시험하거나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教師의 적절한 發問 能力을 말한다.

Ⅲ. 教育大學 音樂科 教育課程의 構成

教育大學은 音樂만 가르치는 教師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9개 교과를 모두 가르치는 즉, 初等教師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먼저 教育大學 教育課程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音樂科 教育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 즉 학점과 시간 배당을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教授要目을 작성하도록 한다.

A. 教育大學 教育課程의 構成

教師 教育의 目的은 유능한 教師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교사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 교사를 유능한 교사라고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결국 교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은 전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대학 전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 음악과 교육과 관계된 강좌는 얼마나 되며, 그 강좌를 어떻게 운영 하여야 효과적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논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기관의 변천을 살펴본다.

우리 나라 최초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1895년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였다. 일제 초기에는 독립된 초등교사 양성기관을 두지 않았다가 1922년 부터는 각도별로 사범학교가 설립되어 주로 한국적인 교사를 양성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에 교육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학제가 마련 되었으나 초등교사 양성은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가 계속 되다가 1961년 혁명 정부가 제정 공포한 「교육에 대한 임시 특례법」에 의거 1962년에 사범학교는 2년제 초급 대학 수준의 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그 후 제5공화국 탄생과 함께 1981년 부터 4년제 대학으로 개편이 시작되어 1984년 까지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모두 4년제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 제도의 변천과 함께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변천되어 왔을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대학 교육과정 범

위에서 논의를 하려 한다.

현행 교육대학 교육과정은 1981년 4년제로 개편 되면서 국가 사회가 기대하는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고 밝히고 있다.

- (1)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한다.
- (2) 시대 변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넓은 문화 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양을 쌓는다.
- (3)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 (5) 교과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4년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에 따라 구성 되었다.

(1)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대학으로서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하되, 국가의 고등교육 혁신 방향에 따라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 개혁의 추세와 연관을 이루도록 한다.

(5) 교육과정은 일반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전인적인 인격을 함양하도록 한다.

(3)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민정신 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자질과 실천력을 기르도록 한다.

(4) 교직과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토록 한다.

(5) 학생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토록 한다.

(6) 교육실습을 강화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문교부는 4년제 학사과정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준칙이 마련 되었다. 그 후 문교부는 다시 1983년 1월 교육대학 교육과정 준칙을 대폭 개정하고 1984년 12월 다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 현행 교육대학 교육과정인 것이다. 현행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학점 배당 기준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대학 교육과정 학점 배당 기준표

구 분		과 목 별	학 점
교 양 과 정	기 본 교 양	국민윤리 4, 자연과학(Ⅰ)3, 문화사(전통문화 포함)3, 국어 4, 수학 3, 국사 3, 체육 4, 컴퓨터교육 2, 철학개론 2, 남:교련 4, 여:유아교육 4	32
	외 국 어	영어 6 제2외국어(독, 불, 일, 태)3	8
	인 문 과 학	인생과 철학 2, 언어생활 2 한문(동양고전포함)2, 문학(아동문학포함)2 (택2)	4
	사 회 과 학	인간과 사회 2 인간의 이해 2 국가발전과 경제 2 인간과 환경 2 인간과 정치 2 생활과 법률 2 (택 2)	4
	자 연 과 학 (Ⅱ)	물리학 2, 생물학 2, 화학 2, 지구과학 2 (택 2)	4
			54

구 분		과 목 별	학 점	
전 공 과 정	예 능	미술과 생활 2, 미학 2, 음악(국악포함) 2, 무용2, 연극 2 (택 1)	2	
	필 수	교육원리 2 교육사 2 교육심리 2 학교·학급경영 2 교육사회학 2, 교육과정 및 수업이론 2, 교육평가 2 교사론(초등교육론포함) 2	19	
	선 택	교육공학 2 교육철학특강 2 교육연구 및 통계 2 교육자료실(학교도서관포함) 운영 2 (택 2)	4	
	각 과 교 육	초등도덕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38~42	66~70
		초등국어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초등사회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산 수 과 교 수 법 2 교재연구 2		
		자 연 과 교 수 법 2 교재연구 2		
		실 과 교 수 법 2 교재연구 2		
		초등음악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초등미술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초등체육과교수법 2 교재연구 2				
초등교과통합지도 및 특별활동 3				
예·체능실기	음악, 미술, 체육실기 3(각 1학점~2-3시간)	1		
교 육 실 습	참관실습 1(3학년 1학기 참관·평가토론)	4		
	수업실습 2(4주) 실무실습 1(학교·학급경영)			
심 화 과 정		국어교육 21, 수학교육 21, 윤리교육 21, 사회과교육 21, 과학교육 21, 실업교육 21, 음악교육 21, 미술교육 21, 체육교육 21, 초등교육(특수교육포함) 21, 유아교육 21 11개 교과중 1 또는 2교과	21	21
자 유 선 택		(각 교육대학에 따라 개설)	4~1	4~0
졸 업 논 문		성적면역		
총 계		148		

〈표 1〉의 교육과정 기준표는 문교부의 준칙인 만큼 교육대학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편제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인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仁川教育大學 敎育課程表

198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개정시행 : 1988. 3. 1.

영역	과목	이 수 학 기 별 학 점								학 점		비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교양과목	국문윤리	2	2							4		
	국어	2	2							4		
	국사	3								3		
	자연과학	2	1(2)							3(4)	32(42)	
	수학		3							3	[32(38)]	
	문화사	3								3		
	체육	1(2)	1(2)	1(2)	1(2)					4(8)	54(64)	
	컴퓨터교육				2(3)					2(3)	[54(60)]	
	철학개론				2					2		
	교원	1(2)	1(2)	1(2)	1(2)					4(8)		
	(유아교육)			[2(2)]	[2(2)]					[4(4)]		
	외국어	2	2	1(1)	1(1)					6(6)	8(8)	
	제2외국어(4중택1)				2					2		
	인문과학	4과목 중 택 2이상	2	2						4		
	사회과학	6과목 중 택 2이상		2	2					4	14	
	자연과학	4과목 중 택 2이상			2	2				4		
전공	예술	5과목 중 택 1이상		2	2					2		
	교육원리	2								2		
	교육심리		2							2		
	교육사			2						2		
	교육사회				2					2		
	학교·학급경영							2		2	19	
	교육과정및수업이론			3						3		
	교육평가				2					2		
	생활지도							2		2		
	교사론(초등교육론)								2	2		
	선택	4과목 중 택 2이상				2			2	4	4	
	초등도덕과 교수법					2				2		
	초등도덕과 교재연구						2			2		
	초등국어과 교수법					2				2		
	초등국어과 교재연구						2			2		
교과목	초등사회과 교수법					2				2		
	초등사회과 교재연구						2			2		
	초등수학과 교수법					2				2		
	초등수학과 교재연구						2			2		
	초등과학과 교수법					2				2		
	초등과학과 교재연구						2			2		
	초등체육과 교수법					2				2	39	74(77)
	초등체육과 교재연구						2			2		
	초등음악과 교수법					2				2		
	초등음악과 교재연구						2			2		
	초등미술과 교수법					2				2		
	초등미술과 교재연구						2			2		

영역	과목	이 수 학 기 별 학 점								학 점			비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전공과목	과목	초등실과 교수법				2				2			
	과목	초등실과 교재연구					2			2			
	과목	초등특별 활동지도						1		1			
	과목	초등교과 통합지도							2	2			
	예체능	체 육 실 기						1(2)		1(2)			
	예체능	음 악 실 기	1(2)	1(2)	1(2)					3(6)	7(14)		
	예체능	미 술 실 기		1(2)	1(2)	1(2)				3(6)			
	교육실습	실습 지도 및 관찰			1					1			
	교육실습	* 참관실습 (2주)				1(0)				1(0)	5(1)		
	교육실습	* 수업실습 (4주)						2(0)		2(0)			
심화과정	교과교육	* 실무실습 (2주)							1(0)	1(0)			각교과별 운영(별 첨참조)
	심화과정	심화과정별 7개과목			3	3		3	6	6	21	22(21)	
자유선택	심화과정	* 졸업논문 (실기)							1(0)		1(0)		
	자유선택							2		2	2	2	
합 계		21(24) [20(22)]	20(25) [19(23)]	20(24) [21(24)]	19(23) [20(23)]	21(20)	21(21)	16(15)	14(12)	152(164) [152(160)]			

(유의) 1. *표시는 P/F제 과목으로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제산에서는 제외됨.

2. 이수학기별 학점 및 학점란의 ()안은 주당시간수로서 학점수와 다른 경우에만 표기함.

3. () 안은 교련 대체과목 이수자의 학점으로 여학생 전원과 남학생중 교련 비교육대상자에만 해당됨.

(단, 남학생중 교련생으로 교련을 3학점으로 이수한 경우(R.N.T.C생은 4학점) 부족된 1학점 보충을 위하여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위<표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편제를 보면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부전공), 자유선택(각 교육대학에 따라 개설) 및 졸업논문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과정은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대학의 전공은 초등교육으로 선택교과가 주전공이 될 수 없으며 선택교과는 심화과정으로 명기 하였다.

深化課程에 대해서는 일정한 준칙이 없이 각 교육대학별로 11개의 영역에서 21학점 씩을 개설 운영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교육대학의 실정과 지역 사정에 맞게 교과별로 과목을 개설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교육대학 간에 일정한 원칙을 찾기란 어렵다.

深化課程 科目은 특정한 영역 및 교과를 심화하여 이수하게 한 후 해당되는 교과 또는 교직 분야의 전문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국어과교육, 수학과교육, 윤리과교육, 사회과교육, 과학과교육, 실업과교육, 음악과교육, 미술과교육, 초등교육(특수교육 포함) 그리고 유아교육 중 1개를 선택하여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교육대학 현행 교육과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 학생 누구나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음악과 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은 전공 과정에서 교과교육의 초등음악과 교수법 2학점과 초등음악과 교재연구 2학점 그리고 예체능의 음악실기 3학점(6시간)이다.

각과교육의 교수법과 교재연구를 각 2학점씩 배당한 가운데 예체능 교과는 실기를 1학점(2~3시간)을 추가한 것은 현재의 교육대학 여건으로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 더우기 인천교육대학은 3학점(6시간)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것은 더욱 다행한 일이다. 이는 교육대학 입시 제도상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교과에 정상적인 교육이 부족한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이 교육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예체능 이외의 다른 교과에 입시 준비 등 고등학교까지의 정상적인 교육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본 학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음악에 대하여는 최소의 기능도 소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 기능도 길러 주어야 하며 지도 능력도 길러 주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 만큼 다른 교과와 같은 학점 배당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B. 音樂科敎育의 敎授要目 構成方向

音樂科敎育이 하나의 學問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音樂이라는 內容과 敎育學에서 方法論을 찾아 수용해야 한다. 다시말해 內容과 方法이 하나가 되어 구별되지 않는 통일된 모습으로 독자적 체계를 이룬 것이 곧 音樂科敎育學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는 音樂科敎育의 敎授要目은 內容이나 方法으로 수용된 여러 學問들이 각각의 개별적 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융합된 가운데 새로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조직된다.

1. 敎育要目 作成의 方針

- ① 전체를 基礎理論篇과 領域別 敎育論篇으로 구성한다.
- ② 基礎理論篇에서는 音樂科敎育의 概觀, 音樂科 敎育課程과 敎科書, 音樂科敎授學習 理論, 音樂科 敎材研究를 다룬다.
- ③ 領域別 敎育論篇에서는 歌唱敎育, 器樂敎育, 創作敎育, 鑑賞敎育을 다룬다.
- ④ 敎育基礎 敎科目들과 다른 各科敎育 敎科目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이론은 제시하지 않고 音樂科敎育의 관점에서만 內容을 제시한다.
- ⑤ 단순히 理論的 접근만을 시도하지 않고 音樂의 訓練과 현장 상황에 대입하여 현장에서의 운용 능력이 함양 되도록 한다.
- ⑥ 領域別 敎育論篇의 各 領域은 單元이나 題材別 접근과 무관하여 현장감이 부족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한다.
- ⑦ 페이지 수가 많아지더라도 충분한 내용이 담기도록 한다. 강의 시간에 모두 다루지 못하더라도 卒業 후 현장 敎育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音樂科教育」의 教育要目 實際

教 授 要 目	備考(교재집필 방향, 교육학과의 관계 등)
I. 基礎理論	
1. 音樂科教育의 概觀	
1.1 音樂科教育의 概念	○ 音樂, 音樂教育, 音樂科教育의 의미를 비교하여 밝힌다.
1.2 音樂科教育의 特性	
1.3 音樂科教育의 價値	
1.4 音樂科教育의 目標	
1.5 音樂科 教育論	
2. 音樂科 教育課程과 教科書	
2.1 音樂科教育의 變遷	
2.2 現行 音樂科 教育課程	○ 現행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시키되 근원원리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한다.
2.3 現行 音樂科 教科書	
2.4 主要國의 教育課程과의 比較(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 外國의 音樂科 教育課程을 소개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音樂科 教育課程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音樂科 教授學習 理論	
3.1 音樂科의 學習領域	
3.2 音樂科의 統合指導	
3.3 音樂科 教育學習 計劃과 教授學習 指導案 作成	○ 音樂敎 行動 分類
3.4 音樂科教育의 諸方法	○ 칼울프, 코다이, 달크로즈, MMCP등
3.5 音樂科 教授學習評價	○ 音樂의 質問과 非音樂的 質問 比較, 실기 평가의 관점 및 배점
4. 音樂科 教材 研究	
4.1 教材의 概念	
4.2 概念的 接近法	○ 構造論과 나선형식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音樂의 基本要素를 단계적으로 概念化 정의한다.
4.3 題材研究와 授業目標決定	○ 수업목표 진술 기준
4.4 指導法 研究	○ 授業節次나 指導資料 製作 및 準備
II. 活動領域別 教育論	
1. 歌唱教育	
1.1 歌唱指導의 意義	
1.2 歌唱을 중심으로 한 統合指導	○ 歌唱教材를 중심으로 基本要素, 즉 基本概念을 설명한다.
1.3 歌唱學習指導의 方法과 實際	
1.3.1 읽기 및 歌唱教育	○ 읽기와 쓰기 능력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함을 강조한다.
1.3.2 쓰기 및 聽音教育	
1.3.3 題材의 基本要素 分析	
1.3.4 歌唱의 評價	○ 평가 관점 및 배점
1.4 合唱指導의 方法과 實際	○ 合唱指導의 단계와 合唱指揮를 한다.

教 授 要 目	備考(교재집필 방향, 교육학과의 관계 등)
2. 器樂教育 2.1 器樂教育의 意義 2.1.1 器樂教育의 概念 2.1.2 器樂教育의 必要性 2.2 器樂의 基礎指導法 2.3 各樂器의 特徵과 演奏法 2.3.1 Rhythm 樂器群 2.3.2 Melody 樂器群 2.3.3 기타 樂器群 2.4 樂器合奏의 方法과 實際 2.4.1 編曲法 2.4.2 指揮法 2.5 題材의 基本要素 및 樂曲分析 2.6 器樂의 評價 3. 創作教育 3.1 創作教育의 意義 3.1.1 創作의 意味 3.1.2 創作能力의 範圍 3.1.3 創作教育의 概念 3.2 創作教育의 目的 3.3 創作教育의 方法과 實際 3.4 創作의 評價 4. 鑑賞教育 4.1 鑑賞教育의 意義 4.2 鑑賞教育의 目的 4.3 어린이 鑑賞能力의 發達 4.4 鑑賞指導의 方法 4.5 鑑賞指導의 實際 4.6 鑑賞의 評價	○ 各種 樂器의 음질, 음감, 음색 및 연주법을 익힌다.(국민학교 교실수업에 쓰이는 樂器는 물론 관현악단에 쓰이는 악기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악기도 포함한다) ○ 간단한 악기편성의 편곡법과 器樂合奏의 指揮를 한다.(편곡의 기본원칙과 지휘법 강의) ○ 평가 관점 및 배점 ○ 평가관점 및 배점 ○ 어린이의 뇌신경 세포의 특성과 연관해서 ○ 시대별, 연주형태별, 악곡의 종류별 ○ 음악적 질문과 비음악적 질문

3. 教材開發에 주는 시사점

- ① 音樂科教育이 學問으로 정립되어 가려면 독자적 理論體系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理論에 根據하여 現場授業에 직접 活用할 수 있는 能力培養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 ② 各章의 말미에 핵심적 연구 문제를 제시하여 知識活用能力을 높인다. 그리고 參考文獻을 제시하여 深化學習에 도움이 되게 한다.
- ③ 卷末에는 教育課程 등 필요한 부록을 제시한다.

C. 音樂科 深化課程의 運營

教育大學은 初等教師 양성 기관이다. 이말은 中等教師 양성 기관인 師範大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入試과정에서 教育大學은 인문계열로 분류되지만 師範大學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범대학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 계열별 先授教育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체능 계열은 각 전공별 실기능력을 비롯한 제반 기본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여 그 전공의 기본적인 바탕위에 지도능력을 키운다.

그러나 初等教師는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교과활동 즉,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실과인 9개 교과의 지도능력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예·체능 계열에 대한 기초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입학한 교육대학에서 음악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길러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중등교사는 전공 교과만 연구하여 교실 일반 음악 수업은 물론 특별활동지도 즉, 합창, 합주등을 지도하고 있으나 초등교사는 9개 교과를 고루 지도해야하며 특별활동 지도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교육 연구능력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教育大學 教育課程에는 中等教師 양성기관인 師範大學과 다른 深化課程이 있다. 이 심화과정을 통하여 어느 특정 교과를 보다 심도있게 敎育하여 일반 수업은 물론 교과교육 연주능력을 키우며 특별활동 지도능력을 키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교육대학 입학 계열은 인문계열로서 음악에 대한 기초 기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音樂科의 특별활동 지도능력 그리고 音樂科 교육연구능력을 갖추도록 敎育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능력있는 교사를 길러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 보기 위하여 音樂科 深化課程 운영의 문제점을 들어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音樂科 深化課程 運營의 問題點

教育大學의 音樂科 深化課程은 교육대학 학생들이 장차 교사가 되었을때 음악교과 수업 능력은 물론 특별활동의 음악 분야 지도 담당 및 음악교과 현장 연구활동 능력도 길러야 한다. 교육대학 입학 전 음악교과에 대한 기능과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길러 주며 지도 능력을 함께 길러 준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논고에서 교육대학 입시제도 까지 논할 수는 없고 현재의 여건에서 보다 바람직한 심화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심화과정 총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 심화과정은 부전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다른 일반대학 부전공의 개념과는 다르다. 일반대학의 부전공은 하나의 전공과정이 있고, 그 전공과정과 유사 또는 다른 분야를 부차적으로 더 공부하는 것인데, 교육대학 학생들은 초

등교육이 전공이면서 그 중에 한 교과 또는 한 분야를 보다 더 수준높게 질높게 심도있게 공부하는 것이 심화과정이다.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교육대학 입학 전 선수 학습이 부족한 1차학문(음악)도 심화 되어야 하며 2차 학문(지도법)도 심화 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21 학점으로는 심도있는 교육을 위한 학점 수로는 부족된다.

둘째, 음악과 심화과정의 과목 설정과 그 배당 학점의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심화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은 각 교육대학의 실정과 지역사회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대학 마다 그 과목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국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심화과정 교과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국 교육대학 음악교육 심화과정

()시간

학기 대학	3	4	5	6	7	8
서울교대	음악이론3(3)	화성법 3(3)	음악교육론(Ⅰ) 3(3) 작곡법 3(3)	음악교육론(Ⅱ) 3(3) 성악, 피아노Ⅰ (택1) 3(4)	음악교육연구 3(3) 피아노Ⅱ, 합창 (택1) 3(4)	음악사, 기악 (택1) 3(4) 국악실기, 합주 (택1) 3(4)
부산교대	시창·청음3(4)	피아노실기3(4)	화성법 3(4)	성악실기 3(4) 작곡실기 3(4)	음악사3(4)	관현악실기 3(4)
광주교대			시창·청음3(4)	화성학 3(4)	피아노실기3(4) 합창 3(4)	작곡 3(3) 합주 3(4) 국악Ⅱ 3(3)
대구교대			성악실기3(4)	음악과 교육론Ⅰ 2(2) 국악교수법2(2) 피아노실기Ⅰ 2(3)	가창 2(2) 기악합주 2(3) 피아노실기Ⅱ 2(2)	음악교육론Ⅱ 3(3) 창작 3(3)
인천교대	기악 2(4)	국악이론2(2) 피아노, 관·현악기 (택1) 2(4)		성악 3(5)	국악실기 2(3) 화성론 2(3) 한국음악교육연구, 서양음악교육연구 (택1) 2(3)	합주 2(4) 음악분석 2(2) 음악교육론2(2)
춘천교대			피아노실기3(6)		성악실기 3(6) 기악실기 합창·합주3(6)	건반화성 3(3) 작곡실기 3(6) 음악교육 3(3)
청주교대			기악실기2(2) 피아노실기1(2) 성악실기2(2) 음악이론·국악이론1(1)	기악실기1(2) 피아노실기2(2) 성악실기1(2) 음악이론·국악이론2(2)	합창지도법3(3) 합주지도법3(4)	창작지도법3(3)
공주교대	피아노Ⅰ 1(2) 성악 2(2)	피아노Ⅰ 1(2) 기악 2(2)	피아노Ⅱ 1(2) 국악Ⅰ 3(4)	피아노Ⅱ 1(2) 국악Ⅱ 3(4)	음악양식과 감상 3(4)	작곡 2(2) 선율과화성2(2)

학기	3	4	5	6	7	8
대학						
전주교대		기악 3	성악 3	합창 3	합주 3 화성및 대위법3	음악사 3 작곡법 3
전주교대		피아노실기3(4)	기악실기 3(4)	합주 3(4)	화성법·창작2(2) 건반화성·반주법 2(2)	성악실기 3(4) 합창·지휘법 3(3)
제주교대	화성학 3	대위법 3	음악형식및 분석 3	기악이론및 실기 3	성악이론및 실기 3 작곡이론및 실기 3	음악사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教育大學의 音樂科教育 深化課程의 科目들은 音樂科의 기능과 지식에 관계되는 과목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音樂科教育의 심화를 위한 과목은 서울, 대구, 인천, 춘천, 청주교육대학에서 21학점 중에 2~9학점을 배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국 교육대학이 전반적으로 音樂科教育의 심화보다는 주로 音樂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音樂 본래의 기본적 기능과 지식이 없는 현재의 교육대학 학생들에게는 우선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音樂科의 지도 능력을 길러야 하는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음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음악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질 높은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는 점진적으로 音樂 못지 않게 音樂科教育을 深化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목별 이수 학점과 운영시간을 보면 3학점 3시간~6시간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2~3학점 2~6시간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이것은 제한된 21학점 범위에서 深度있는 과목운영이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많은 과목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겠느냐 하는데에 차이를 둘 수 있겠다. 교과목 명칭이 내용을 대변하는 만큼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音樂科教育 내용을 더 넓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실기를 함께 수반해야 하는 내용들인 만큼 시간 운영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세째, 音樂科教育論에 대한 理論的 定立이 시급하다. 音樂科教育의 역사도 짧지만 音樂科教育에 관한 研究는 더더욱 짧아 學問的으로 理論 정립이 미약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 音樂科教育을 學問的으로 研究되어 理論을 정립해야 한다. 다시말해 음악 본래의 기능이나 지식지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音樂科 教育에 관한 연구는 부진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교육 및 심화 과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 音樂科 深化課程 運營의 改善點 앞에서 전국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 교과목을 검토하며 보다 나은 교사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면을 감안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첫째, 심화과정 총 이수 학점이 부족하다.

둘째, 음악과교육을 심화하는 내용을 더 늘려야 한다.

셋째, 음악과교육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한번에 개선한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며 현실을 감안한 교육대학의 음악과교육 심화과정 교과목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論하고자 한다.

음악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음악의 기능과 지식에 관한 과목의 운영에서 음악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악곡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분석하면 형식, 화성분석 만이 아니라 기본요소를 둘러싼 악곡의 구조적 분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과 같이 합창지도법, 합주지도법 창작지도법과 같이 음악 활동과 더불어 그의 지도법을 함께 지도하는 방법 즉,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음악의 기능과 지식은 물론 지도법을 병행하는 교과목 운영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音樂科教育論에서는 音樂科教育의 기초와 원리를 폭 넓게 다루며 음악의 구조론,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지도법, 그리고 음악과교육연구 까지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의 심화과정을 바르게 인식하여 교과목 선정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음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려면 풍부한 음악에 대한 기능과 지식의 바탕위에 지도법을 교육했을때 교육대학에서 배운 기능과 이론이 현장에 나가 쓸모있는 이론이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정된 학점과 시간 범위에 교과목 명칭도 중요하지만 교과 내용 운영에도 많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結 論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교사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의 근본적인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유능한 교사상과 현실적인 교육대학 재학생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말해 현재의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인문계열로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예·체능 교과를 소홀히 다룬 처지로 음악에 대한 기본적 기능 및 지식이 부족한 터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음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대학 사정이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조건하에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란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여건 속에서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육과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천의 결과를 반성 평가해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차제에 몇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대학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초등교사의 자질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 규명하고 그러한 소양과 자질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구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본틀을 구안함에 있어 교양과목, 교직과목, 교과교육과목들의 성격과 그 비율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과교육 내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적정한 학문분야에 대한 검토와 그 배합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 즉, 음악에 대한 심오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리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과연 어떤 기능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음악과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검토되고 현실적 여건하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教育大學教材編纂委員會, 音樂教育(教育大學教材), 서울: 好樂社, 1986.

成敬姬, “有能한 音樂教師의 特性 및 資質에 관한 文獻研究,” 韓國教育, 第12輯 1號,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5.

李誠載, 音樂教育, (서울 大學校附設韓國放送通信大學教科),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9.

仁川教育大學教育研究所, 教育大學 教育基本科目과 教科教育科目 間の 關聯性 分析 및 內容構成에 관한 研究, 仁川: 仁川教育大學教育研究所, 1987.

한국교육개발원, 음악수업 지침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7.

Leonhard Charles and House Robert W., *Foundation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seco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72.

ABSTRACT

A Study on the Music Curriculum in the Teachers College

Prof. Kye-Hyu Shin

The primary task of teachers college is to produce competent teachers who fill the role for quality education. To fulfill this task properly, what matters in the curriculum.

This study center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urriculum as well as on the presentation of the desirable traits of the music teacher and the scope of the curriculum which will be of help in writing textbooks.

Presently the students who enter the teachers college are in lack of basic knowledge and skill in music. If i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 credits are to be allocated to music educatio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 music teacher is the ability to ask probabilistic questions with regard to musical work and musical elements. In writing textbooks what are needed is to compare beforehand the music curriculums of foreign countries, to enhance conceptual approach where musical elements are systematically presented focusing on structures of knowledge and spiral curriculum, and to clarify the assumptions supporting evaluation criteria and score assignment.

With all these and others in mind basic orientation of the music curriculum is suggested. Bu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find out the optimum curriculum.